

국내 거주 해외유학생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f Health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윤정원 (JungWon Yoon)**

초 록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의 건강정보탐색행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정보탐색행위를 설문지와 결정적사건기법을 이용한 면담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최근 경험한 건강정보 요구 중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요구(코로나 검사, 증상, 백신)와 병원을 찾는 요구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건강정보탐색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언어의 문제가 가장 많았고, 한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부족, 인터넷상의 정보 불충분 또는 정보과잉 등도 보고되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은 한국어 정보원(친구/가족, 웹사이트, 소셜미디어)을 주요 건강정보원으로 사용하였다. 유학생들은 구글번역기를 사용하거나, 이중언어가 가능한 친구/가족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정보원을 통해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체류기간이 짧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소셜네트워크 상의 커뮤니티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한국 체류기간이 길고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건강정보를 찾는데 있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참가자의 28%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유학생들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학생들이 필요한 건강정보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health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international students. This study examined the health information search behavio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through a questionnaires and in-depth interviews adopting Critical Incident Technique. Most frequent health information needs that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were related to Covid-19 and locating doctors/hospitals. The difficulties in seeking health information were language barriers, lack of knowledge of the Korean medical system, insufficient or overflowi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owever, despite the language barrier, international students mainly used Korean sources (friends/family, websites, social media) for searching health information. In order to search health information on Korean websites, they used Google Translator or got help from bilingual friends/family members. The participants who have lived in Korea for a shorter period of time or who have lowe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nd to obtain health information through the community on social networks; whereas the longer the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and the better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he more likely to use websites. Only 28% of the participants gave positive answers to the question asking their confidence in finding the health information they needed. It is discussed how to help international students find accurate and credible health information.

키워드: 정보추구행위, 건강정보, 외국인 유학생

information-seeking behavior, consumer health information, international students

* 이 논문은 2021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yoon@jbnu.ac.kr)

■ 논문접수일자: 2021년 12월 9일 ■ 최종심사일자: 2021년 12월 15일 ■ 게재확정일자: 2021년 12월 16일

■ 정보관리학회지, 38(4), 231-250, 2021.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4.231>

※ Copyright © 2021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15만 2,281명으로 조사되었다(교육통계서비스, 2021). 이 숫자는 2019년의 16만 165명과 비교하면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소폭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지만 이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현상으로 여겨지며, 2004년의 2만 여명, 2010년 8만 여명의 외국인 유학생 숫자를 감안할 때 급격한 성장을 보여왔음을 알 수 있다(강성규, 2021). 유학생은 학업을 목적으로 본국을 떠나 타국에서 삶을 살아간다. 따라서, 학업 성취와 미래를 위한 준비에 집중한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대학생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 살아왔던 나라를 떠나와서 언어를 배우고, 낯선 나라의 문화, 사회 시스템과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민자들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 고학력, 짧은 체류 기간 등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민자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유학생들은 학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가족 및 모국의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의 고립 등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Jeong, 2004; Yoon & Kim, 2014).

유학생들이 목표하는 학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는 학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삶의 각 영역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다양한 삶의 영역 중에

서도 유학생들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학업 성취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내영과 한지영(2011)은 “건강문제는 유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학업과 더불어 유학생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p. 54)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건강 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저체중과 고도비만자가 많고, 성관련 문제, 구강질환, 눈의 피로감, 소화불량, 충치, 치통 등의 신체증상을 경험하며,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 문제는 유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넘어서, 청년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정보는 건강정보소비자가 건강과 관련된 여러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Chen, Kendall, & Shyu, 2010), 올바른 건강정보를 접근, 이해, 이용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Yoon & Kim, 2014). 특히, 유학생들은 의료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 계층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정확한 건강정보에 적시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 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건강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유학생들의 건강정보요구와 건강정보탐색활동의 특성 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정보탐색행위를 탐구한 연구는 부족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지는 건강

정보요구 및 건강정보탐색활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건강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RQ1: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정보 추구행위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 RQ2: 한국체류기간 및 한국어의 유창성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정보추구행위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에서 모두 e-헬스 리터러시와 건강정보신뢰도가 건강정보이용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그 밖의 유학생들의 건강정보탐색행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특히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정보탐색행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대학생과 이민자의 건강정보탐색행위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집단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유학생의 건강정보탐색행위에 대한 선행연구를 대신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유학생들의 건강정보탐색행위를 조사한 연구로 Yoon과 Kim(2014)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건강정보탐색행위를 조사하여, 한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탐색하는 건강정보주제는 운동, 영양/식단, 약에 관련된 것이며, 건강정보 탐색을 위해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건강정보를 모두 활용함을 밝혔다. 한국인 유학생들은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건강정보의 출처를 식별하고 건강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남영희와 정인숙(2020)이 한국대학생과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e-헬스 리터러시, 건강정보 신뢰도 및 건강행위가 건강정보 이용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연구하였다. 한국학생들의 e-헬스 리터러시, 건강정보 신뢰도, 건강정보 이용동기의 평균값이 중국학생들

2.1 대학생의 건강정보탐색행위

대학생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집단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청년기에 습득한 건강한 습관이 이후 생애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며 만성질환을 방지할 수 있다(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016; Lederer & Oswalt, 2017)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건강상태, 건강문해력 및 건강정보탐색행위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특히 대학생들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인터넷 사용율과 디지털 기술 능력이 높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 건강정보탐색율이 높으며(김수정, 오상희, 2012; 김승대, 김명관, 2015; Escoffery et al., 2005), 따라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한 건강정보탐색행위에 대한 연구들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Escoffery et al.(2005)에 의하면 74%의 응답자가 온라인으로 건강정보를 접근한 적이 있으며 40% 이상은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인터넷 검색을 한다

고 하였다. 학생들은 건강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검색 엔진과 여러 웹 사이트를 사용하지만, 11%의 응답자만이 원하는 건강정보를 항상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Hanauer et al.(2004)의 연구는 대학생들이 다이어트와 영양 관련 주제에 가장 관심이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인터넷이 빠르고 편리하며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건강정보를 탐색하지만, 인터넷에는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포함된 건강 정보가 많으므로 인터넷 건강정보소비자는 정보를 평가하고 선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Yoon & Kim,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온라인 건강정보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Escoffery et al.(2005)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정확성, 신뢰성, 최신성, 명확성 및 콘텐츠 이해의 용이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Hu와 Sundar(2010)은 정보의 출처(의사와 일반인)와 정보원(웹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인터넷)이 건강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전문가(의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에 높은 신뢰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1명의 대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강정보탐색행위를 조사한 Kim, Park, Bozeman(2011)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건강 웹사이트 신뢰도 평가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보였으나, 실제 평가 기술은 잘 개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연구로 김승대와 김명관(2015)은 대학생들의 건강정보행위와 건강행태개선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건강정보 접근빈도가 많을수록

건강행태개선 점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인터넷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보원이었으며, 건강관련 방송은 건강전문가 등이 전달하는 정보인 경우 질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즉시성과 맞춤형에서는 단점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김수정과 오상희(2012)는 대학생들의 건강정보추구를 위한 소셜 미디어의 이용행태를 조사하였는데, 약 67%의 대학생들이 건강정보를 위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답하였고, 소셜 Q&A, 블로그, SNS의 순으로 선호하며, 운동, 다이어트/영양, 특정질병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건강정보추구를 한다고 응답한 대학생 중 23%는 온라인건강정보탐색에 자신이 없다고 하였으며, 소셜미디어 상의 건강정보의 신뢰성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김수정(2012)은 심층면담을 통하여 대학생들은 편의성과 유사 경험자들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하여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며, 소셜 미디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김경환(2016)은 20대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의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최신성, 비용성, 유용성, 용이성, 신뢰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소셜 미디어의 효용을 계산하여 블로그와 페이스북의 효용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임성원 외(2013)는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적용하여 건강관련 모바일 앱의 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능적인 동기부여인 놀이성”(p. 399)을 높여야 하며, 건강지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2.2 이민자의 건강정보탐색행위

이민자는 일반적으로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소외계층으로 여겨지며 의료 시스템 접근 및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취약 집단으로 여겨진다(Chen, Kendall, & Shyu, 2010; Gany et al., 2006; Zhao, 2010). 이민자들의 건강정보탐색행위에 관한 국외 연구들은 이민자들의 건강 불균형을 완화하고 건강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정보탐색행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Clayman et al., 2010; Richardson et al., 2012). 특별히, 인터넷은 언어 장벽을 경험하는 이민자들에게 모국어로 건강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또한 동일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과 경험들을 공유하고 감정적인 지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Kim & Yoon, 2012)는 점에서 그 유용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를 포함한 소수 민족 집단들의 온라인 건강정보 사용율이 높은 것은 언어 및 문화적 장벽과 낮은 의료시스템의 접근성을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Yoon & Kim, 2014). 그러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자국민에 비해 이민자들은 건강정보에서도 격차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건강정보커뮤니케이션 국가서베이(Health Information National Trends Survey: HINTS)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들의 건강정보검색 경험이 크게 향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에 비교해보면 이민자들은 건강정보검색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건강정보 접

근에 대한 자신감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두 그룹간에 격차가 있음을 드러냈다(Yoon, Huang, & Kim, 2017). 이민자 그룹 안에서도, 건강관리 및 보건시스템에서 소외되는 이민자들일 수록 건강정보탐색에 있어서도 역시 취약 계층에 속한다는 것이 조사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경제적, 언어적으로 소외된 계층일수록 건강정보탐색에서도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Jang, Yoon, Park(2018)이 아시아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건강 관련 지표(높은 보험, 높은 의료 요구 충족도, 더 나은 건강 상태)를 가진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하여 찾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비공식정보원(가족, 친구, 지인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고 영어 능력이 제한적이며 미국 거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HINTS를 통하여 미국의 이민자 중, 건강정보탐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교육 수준, 소득, 영어능력,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사용정도, 디지털기기소유, 건강상태,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Kim, Huang, & Yoon, 2020).

국내의 이민자의 건강정보탐색행위에 대한 연구로, 최근 장선미(2020)는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이민자 171명을 대상으로 이민자의 건강정보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민자들의 건강정보 이용빈도는 주 1회 이상 20.5%, 월 1회 이상은 34.5%로 나타났으며, 건강정보출처로 인터넷 29.8%, 지인(친구, 가족 등) 28.7%, 의료기관 15.2%로 조사되어,

인터넷과 함께 지인 등의 비공식정보원이 이민자들에게는 중요한 건강정보원임을 밝혔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1년 9월, J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면담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J 대학국제협력부의 도움을 받아 페이스북 상의 J 대학 유학생 커뮤니티에 연구모집 광고를 하였고, 33명이 연구참여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33명의 유학생 중 11명은 한국에서의 건강정보탐색 경험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에서의 건강정보탐색 경험이 있는 2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인터뷰 연구에 관한 안내를 하였고, 최종 1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에 참여한 18명(이 중 2명은 설문지만 참여)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모집 대상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외국인 유학생으로 제한하였다.

면담을 수행하기 앞서, 참가자들의 배경정보 및 건강정보탐색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과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작성된 온라인 사전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대학생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건강정보탐색행위를 조사한 선행연구(Escoffery et al., 2005; Yoon & Kim, 2014)의 설문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한글과 영어 버전으로 작성된 설문지는 한국에서의 건강정보탐색 경험과 인식(건강정보탐색빈도, 사용정보원, 어려움, 건강정보탐색에 대한 자신감, 인터넷/소셜미디어에서 건강정보탐색의 성공율)과 배경정보(나

이, 성별, 학위과정, 전공, 국적, 한국거주기간, 모국어, 영어능력, 한국어능력, 건강관심도,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를 마친 참여자를 대상으로 결정적사건기법(Critical Incident Technique: CIT)을 사용하여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은 카카오톡 또는 줌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영어 또는 한국어 중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하였고, 구술 또는 채팅 중 선호하는 면담방식을 선택하였다. 결정적사건기법을 적용하여 최근의 건강정보탐색 경험을 기억하도록 한 후, 정보요구, 탐색방법, 어려움, 찾은 정보의 유용성 및 탐색정보의 신뢰성 등에 대해 면담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참가자 18명의 특징을 보면, 16명의 참가자는 20대였으며, 남자가 11명을 차지하였고, 학부생(7명), 석사과정(6명)과 박사과정(5명) 학생이 참가하였다. 전공 분야별로는 10명의 참가자가 공과대학 소속이었다. 출신지역으로는 아시아 국가가 12명이었으며, 한국체류기간을 보면, 1년 미만(4명), 1년 이상 - 3년 미만(8명), 3년 이상(6명)이었다. 영어와 한국어의 유창성에 관련하여, 유학생들은 한국어보다 영어의 유창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 9명의 학생이 영어를 모국어이거나 매우 잘함이라고 평가하였으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1명만이 매우 잘함으로 평가하고 9명이 못함 또는 매우 못함으로 평가하였다. 실제로 설문지와 면담 언어 선택에서도 영어를 선택한 참가자는 14명, 한국어를 선택한 참가자는 4명이었다. 18명 중 16명의 참가자들이 건강정보에 관심이 높거나 매우 높다고 하였으며, 13명의 참가자가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거나 매우 좋음으로 평가하였다(〈표 1〉 참조).

〈표 1〉 참가자 특성(n=18)

	#	%
성별		
여	7	38.89
남	11	61.11
나이		
20-24	5	27.78
25-29	11	61.11
30+	2	11.11
학위과정		
학부과정	8	44.44
석사과정	5	27.78
박사과정	5	27.78
전공		
공과대학	10	55.56
생명과학/의학	3	16.67
교육대학	2	11.11
기타*	3	16.67
출신지역		
남아시아	6	33.33
동남아시아	6	33.33
동아시아	3	16.67
기타**	3	16.67
한국체류기간		
1년 미만	4	22.22
1년 이상 - 3년 미만	8	44.44
3년 이상	6	33.33
영어유창성		
모국어	3	16.67
매우 잘함	6	33.33
잘함	3	16.67
보통	3	16.67
잘 못함	3	16.67
매우 못함	0	0.00
한국어유창성		
매우 잘함	1	5.56
잘함	5	27.78
보통	3	16.67
잘 못함	5	27.78
매우 못함	4	22.22

* 예술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각 1명

** 유럽,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각 1명

4. 결과분석

4.1 건강정보탐색 행위

면담에 앞서, 설문지를 통해 건강정보탐색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과 인식, 사용하는 건강정보원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건강정보탐색빈도에 관하여 10명의 유학생들이 일년에 몇 번 정도 건강정보를 탐색한다고 보고하였다. 건강정보탐색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12명의 유학생들이 언어문제를 꼽았으며, 9명은 건강정보를 이

해하기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건강정보가 필요할 때, 탐색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5명은 매우 있음 또는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나, 5명은 자신 없음 이라고 하였다(〈표 2〉 참조). 〈표 3〉은 건강정보탐색에 사용했던 정보원을 한국어정보원, 영어(외국어로서) 정보원, 모국어정보원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빈도를 볼 때, 한국어 정보원으로 분류된 친구/가족(14명), 웹사이트(13명), 소셜미디어(12명)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강정보 정보원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모국어 정보원으로서의 친구/가족

〈표 2〉 건강정보탐색경험 및 인식

구분		빈도	%
건강정보탐색 빈도	거의 매일	1	5.56
	일주일에 몇 번	3	16.67
	한 달에 몇 번	4	22.22
	일년에 몇 번	10	55.56
	계	18	100.00
건강정보탐색의 어려움*	언어문제	12	66.67
	이해의 어려움	9	50.00
	정보원을 잘 모름	6	33.33
	시간 부족	1	5.56
	기타	1	5.56
	없음	1	5.56
건강정보탐색의 자신감	매우 자신 있음	2	11.11
	자신 있음	3	16.67
	보통	8	44.44
	자신 없음	5	27.78
	매우 자신 없음	0	0.00
	계	18	100.00
인터넷 / 소셜미디어에서의 건강정보탐색 성공률	항상	2	11.11
	높음	10	55.56
	보통	5	27.78
	낮음	0	0.00
	전혀 없음	0	0.00
	계	17	100.00

* 복수응답

〈표 3〉 건강정보 정보원*

	한국어정보원		영어정보원**		모국어 정보원	
	빈도	%	빈도	%	빈도	%
웹사이트	13	72.22	9	50.00	7	38.89
소셜미디어	12	66.67	7	38.89	5	27.78
의사/간호사/약사	3	16.67	1	5.56	4	22.22
친구/가족	14	77.78	7	38.89	10	55.56
인쇄매체(잡지, 신문, 책)	0	0.00	2	11.11	1	5.56
TV/라디오	1	5.56	1	5.56	0	0.00
기타	1	5.56	0	0.00	0	0.00
없음	2	11.11	4	22.22	7	38.89

* 복수응답

** 외국어로서의 영어만 포함. 영어가 모국어일 경우, 모국어 정보원에 포함

(10명)과 영어 정보원으로서 웹사이트(9명)로 보고되었다. 사용했던 인터넷/소셜네트워크 정보원을 개방형으로 질문했을 때, 18명의 응답자 중 12명의 응답자가 구글을 사용했다고 하였으며, 9명은 유튜브를 건강정보탐색을 위해 사용했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외에도 페이스북(6명), 네이버(5명), 건강관련웹사이트(5명: kdca.go.kr (질병관리청), Healthscience.org 등)를 구체적인 정보원으로 언급하였다.

면담을 통하여 최근의 건강정보탐색 경험을 중심으로 건강정보요구, 어려움, 정보원, 유용성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건강정보요구로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요구가 7명으로부터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코로나 현황(1명), 코로나 증상(1명), 코로나 검사(2명), 코로나 백신(3명) 등에 관련된 요구들이었다. 병원 검색에 관한 요구가 6명, 건강검진, 건강보험, 다이어트/운동에 관한 요구가 각각 1명으로부터 보고되었다.

설문지에서도 한국어정보원의 사용이 가장 많았지만, 면담과정에서는 한국어정보원의 사용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고되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정보원의 사용이 많은 것은 필요한 건강정보 웹사이트들이나 정보원들이 대부분 한국어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한국어 정보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구글번역기를 통해 어느 정도는 한국어 정보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은 필요한 건강정보를 찾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정보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로 된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한국어와 영어(또는 모국어)가 가능한 친구 또는 소셜미디어의 도움을 받았다. 친구/가족은 언어 문제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 역시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진 유학생(또는 외국인) 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으로 사용되었다.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다오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럴 때 코로나가 아닌가 해서 코로나 증상에 대해 검색해봤습니

다. 구글에 베트남어로 코로나 증상이 무엇인지 검색했고 네이버에 최근 한국에서의 코로나 증상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P14)

“가장 최근에 찾았던 건강정보는 코로나 테스트를 하기 위한 병원이었습니다. [...] 친구가 병원 정보를 네이버로 찾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P3) [한국어로 번역됨]

“코로나 백신을 한국에서 맞을지 아니면 나중에 중국에서 맞을지에 대한 정보, 또 어떤 백신이 나은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한국질병관리청 정보가 유용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매일 백신 관련 정보가 와서 직접 들어가 찾고 거기서 백신 접종 예약했어요.” (P12)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그리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증상이나 백신 차이 등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올리고 질병관리본부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 (P16)

“저는 영어를 잘 하는 피부과의를 찾았습니다. 이 질문을 OO지역 외국인 커뮤니티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생활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P2) [한국어로 번역됨]

“손에 습진이 생겨서 근처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구글을 찾았으나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고 네이버를 사용했습니다” (P7) [한국어로 번역됨]

“OO지역에 살았을 때, 대학 내의 병원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과의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P9) [한국어로 번역됨]

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보원을 통해 건강정보를 찾고자 하는 유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는 유학생의 특성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설문지의 기타 의견으로 대학의 웹사이트 또는 소셜미디어를 건강정보를 위해 사용하는 한국어 정보원으로 답한 참가자가 있었으며, 면담 과정에서도 대학의 국제협력부, 유학생지원센터의 도움을 언급한 경우가 있었다.

“유학생지원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예약해 주었고 이를 통해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 의사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 지 몰랐었는데, 며칠 후 대학국제협력부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P13)

설문지 결과와 동일하게 면담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언급된 어려움은 언어문제였다. 한국의 건강관련 웹사이트들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구글번역기를 사용하였고, 번역기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한국인 친구, 또는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언어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대학의 유학생지원센터] 선생님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서로가 다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P1)

[한국어로 번역됨]

“제 스스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구글]번역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도 찾지 못할 때에는 친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P3) [한국어로 번역됨]

“다 한국어로 되기 때문에 가끔씩 헛갈려요.” (P12)

단순한 언어 문제뿐 아니라, 인터넷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보탐색이 어려웠다는 답도 있었으며,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의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또는 아픈 상황에서 어디를 가야 하는지 등에 관해 알지 못했다는 경험도 있었다.

“종종 인터넷에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한국어 실력이 나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P3) [한국어로 번역됨]

“[졸업 후 사용할 건강보험 정보를 찾았는데] 너무나 많은 선택이 있다는 점과 언어장벽이 어려움이었습니다.” (P11) [한국어로 번역됨]

“어려움은 의사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 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P13) [한국어로 번역됨]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어요. 인터넷과 페이스북을 통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찾았지만

아이디어를 얻지 못했어요. [...] 결국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연고를 샀어요.” (P15)

[한국어로 번역됨]

건강정보가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참고, 여러 정보원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 정보 출처의 신뢰성 확인, 정보의 내용이 증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등의 응답을 찾을 수 있었으나, 정보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신뢰성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P9)거나 그냥 내용을 보고 괜찮은 것 같았다(P10) 등의 명확한 근거 없이 신뢰성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피부과를 찾았는데] 네이버에서 피부과를 확인한 후에는 리뷰섹션을 봤습니다. 친구가 추천하는 곳이면 믿습니다.” (P2) [한국어로 번역됨]

“[안과 의사를 찾았는데] 의사의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었고 그 병원을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 그 의사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없었습니다.” (P9) [한국어로 번역됨]

“[코로나 증상에 관해 찾았는데] 찾은 건강정보가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이트에만 찾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정보를 참고해보고 판단했습니다.” (P14)

“[코로나 백신에 관한 정보를 찾았는데] 잘못된 정보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댓글도 보고 그 사람의 말이 조사 결과 등을 증거로 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P16) [한국어로 번역됨]

앞서 설문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67%의 응답자가 인터넷/소셜미디어에서의 건강정보탐색 성공율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한 반면, 필요한 건강정보를 찾는 것에 대한 자신감에 관해서는 28%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면담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참여자(13명, 81%)는 필요한 건강정보를 찾았고 찾은 정보는 유용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참여자들(16명)이 탐색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즉, 여러 정보원을 사용하여 건강정보를 찾기는 하지만 그 과정상의 어려움(특히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건강정보탐색의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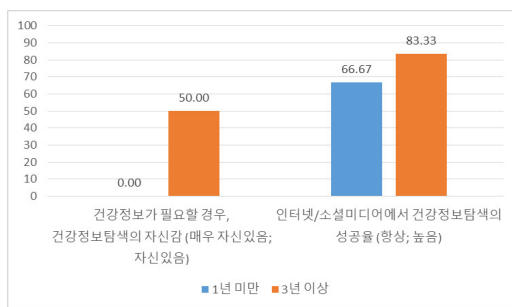
4.2 문화적응도에 따른 건강정보탐색행위

한국문화적응도에 따라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정보탐색행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한국거주기간과 한국어 유창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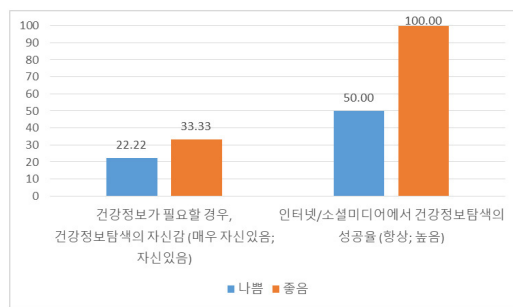
기준으로 유학생들의 건강정보탐색행위를 비교하였다. 한국거주기간은 1년 미만(4명)인 학생과 3년 이상(6명)의 학생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 한국어 유창성은 매우 잘함 또는 잘함(6명)과 매우 못함 또는 잘 못함(9명)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건강정보탐색의 자신감과 인터넷/소셜미디어에서 건강정보탐색의 성공율은 거주기간이 길고 한국어 유창성이 좋을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거주기간이 길수록 건강정보탐색의 자신감이 상승했으며, 한국어 유창성이 좋을수록 인터넷/소셜미디어에서의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건강정보탐색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 언어문제와 건강정보 이해의 어려움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고 한국어가 능숙해 질수록 큰 폭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3년 이상 한국거주 유학생 그룹에서도 언어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유창성이 좋다고 평가하는 그룹에서는 언어의 문제, 이해의 어려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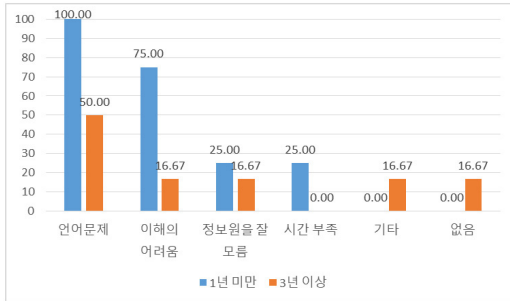


〈그림 1-1〉 거주기간에 따른 건강정보탐색행위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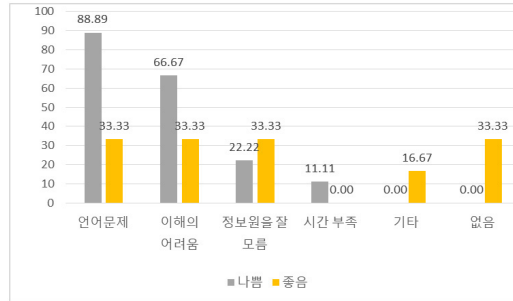


〈그림 1-2〉 한국어 유창성에 따른 건강정보탐색행위 인식 비교(%)

〈그림 1〉 건강정보탐색행위에 관한 인식 비교



〈그림 2-1〉 거주기간에 따른 건강정보탐색의 어려움 비교(%)



〈그림 2-2〉 한국어 유창성에 따른 건강정보탐색의 어려움 비교(%)

〈그림 2〉 건강정보탐색의 어려움 비교

원을 잘 모름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주기간이 길어도 여전히 언어문제는 건강정보 검색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과, 건강정보 정보원에 대한 지식은 언어가 능숙해 진다고 해서 향상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표 4〉는 한국거주기간에 따라 건강정보 정보원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년 미만 한국 거주 유학생들은 소셜미디어(한국어 및 영어)의 사용이 두드러진 반면, 3년 이상 한국거주 유학생들은 한국어 웹사이트와 친

구/가족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표 5〉는 한국의 유창성에 따른 두 그룹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 한국어를 잘 못하는 그룹에서는 한국어 소셜미디어와 가족/친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한국어를 잘 하는 그룹에서는 한국어 웹사이트와 가족/친구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또한 언어가 익숙하지 않을수록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거주기간에 따른 건강정보 정보원 비교(%)

	한국어정보원		영어정보원		모국어 정보원	
	1년 미만	3년 이상	1년 미만	3년 이상	1년 미만	3년 이상
웹사이트	50.00	83.33	50.00	50.00	25.00	33.33
소셜미디어	75.00	66.67	75.00	33.33	25.00	33.33
의사/간호사/약사	0.00	0.00	0.00	0.00	25.00	16.67
친구/가족	50.00	83.33	25.00	0.00	25.00	50.00
인쇄매체(잡지, 신문, 책)	0.00	0.00	0.00	16.67	25.00	0.00
TV/라디오	0.00	16.67	0.00	16.67	0.00	0.00
기타	25.00	0.00	0.00	0.00	0.00	0.00
없음	25.00	0.00	25.00	50.00	50.00	50.00

〈표 5〉 한국어 유창성에 따른 건강정보 정보원 비교(%)

	한국어정보원		영어정보원		모국어 정보원	
	나쁨	좋음	나쁨	좋음	나쁨	좋음
웹사이트	66.67	83.33	55.56	66.67	33.33	50.00
소셜미디어	77.78	50.00	44.44	16.67	22.22	33.33
의사/간호사/약사	11.11	33.33	11.11	0.00	22.22	16.67
친구/가족	77.78	83.33	55.56	50.00	44.44	66.67
인쇄매체(잡지, 신문, 책)	0.00	0.00	11.11	0.00	11.11	0.00
TV/라디오	0.00	16.67	0.00	16.67	0.00	0.00
기타	11.11	0.00	0.00	0.00	0.00	0.00
없음	11.11	0.00	22.22	33.33	44.44	33.33

5. 토론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정보탐색행위를 설문지와 결정적사건기법을 사용한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정보탐색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유창성에 대해 잘 못함 또는 매우 못함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0%가 넘었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탐색행위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Yoon과 Kim(2014)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10%의 유학생만이 영어의 유창성에 대하여 잘 못함 또는 매우 못함으로 답한 것에 비하면,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어 능력은 건강정보탐색의 어려움의 원인에도 반영되었다. 설문지 참가자들은 언어의 문제(67%), 정보이해의 어려움(50%), 정보원을 잘 모름(33%)을 건강정보탐색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Yoon과 Kim(2014) 연구에서는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정보원을 잘 모름(64%), 정보이해의 어려움(44%), 언어문제(32%)로 보고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또한 한국어가 능숙할수록 언어의 문제와 정보이해의 어려움의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원을 잘 모름으로 기인하는 어려움은 거주기간이 길고 언어가 유창해 지더라도 여전히 경험되는 장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과정에서 도출된 어려움으로는 한국의 료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할지를 모른다, 인터넷 상의 정보가 부족 또는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둘째, 한국어 유창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정보 정보원으로는 한국어 정보원(친구/가족(78%), 웹사이트(72%), 소셜미디어(67%))이 주요 정보원으로 조사되었다.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는 건강정보의 주요 정보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며, 특별히 이민자들에게 있어 친구/가족이 주요 정보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선행연구(Jang, Yoon, & Park, 2018; Yoon, Huang, & Kim, 2017)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이다. 참가자들은 한국어 유창

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건강정보들이 주로 한국어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구글)에서 제공하는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이중언어가 가능한 친구/가족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건강정보원을 통해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과 Kim(2014)의 연구에서 유학생들이 모국어 정보원도 영어 정보원과 함께 많이 사용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 참가자들의 모국어 정보원 사용빈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친구/가족은 언어의 문제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거주기간이 짧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소셜네트워크 상의 커뮤니티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는 반면, 한국 거주기간이 길고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근 건강정보탐색 경험을 보면 유학생들은 건강정보탐색 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경우가 많으며 전반적인 인터넷/소셜미디어에서의 건강정보탐색 성공율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답을 한 반면, 필요한 건강정보를 찾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질문에 관해서는 28%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는 언어장벽을 비롯한 건강정보탐색과정의 어려움이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학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이 필요하며, 건강관련문제는 그 중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필요한 건강정보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관련된 기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건강정보탐색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려할 몇 가지 점을 시사해 준다. 첫째,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내용은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의 유창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정보를 찾는데 웹브라우저(구글)의 번역기를 사용하여 한국어 정보원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한국어 정보원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상황에 보다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며, 선행연구의 연구시점에 비교하여 기술의 발달로 검색과정에 쉽게 사용 가능한 번역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어려움과 건강정보 이해의 어려움이 건강정보탐색행위에 있어 가장 큰 장벽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언어장벽이 가장 큰 장애로 나타났다. 유학생 뿐만 아니라 이민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강관련기관이나 대형병원에서 건강 및 의학 정보들을 제공할 때 한국어가 불편한 인구집단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코로나와 같이 사회구성원 전체의 건강보전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는 유학생, 이민자와 같은 언어적인 취약계층을 고려한 건강정보 제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한국 정착 초기단계일수록 가족/친구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이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학생들의 정보요구를 이해하는 집단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의 국제협력부와 유학생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들도 있는 만큼, 대학에서 유학생들의 건강정보탐색에 전

적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겠으나 초기 단계 유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건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한국의료시스템에 대한 기본안내가 제공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미국의 한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Yoon & Kim, 2014)에서는 건강정보원으로서 대학 보건소의 이용이 발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 보건소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얻지 못했다. 유학생들에게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대학 보건소의 역할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체류기간이 길고 한국어가 유창해지더라도 여전히 건강정보원을 잘 알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건강정보원을 알고 적절히 사용하여 건강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건강정보 리터러시와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대학생과 중국대학생의 e-헬스 리터러시와 건강정보이용동기 등을 비교연구한 남영희와 정인숙(2020)은 올바른 건강정보 활용을 위한 교양수업이 대학 차원에서 개설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교양수업이 개설된다면, 건강정보의 이해와 건강정보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설문지 및 면접 언어가 한글과 영어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이나 영어가 불편한 참가자들은 제외되었을 수 있다.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정보 설문지의 경우 이민자들의 모국어로 진행되는 설문지와 거주하는 국가의 언어로 진행되는 설문지의 경우 그 응답자들의 분포가 서로 다른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거주국가의 언어로 설문지가 진행될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있게 되고, 이러한 언어장벽이 있는 이민자들일수록 건강정보 및 의료시스템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Jang, Yoon, & Park, 2018).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에서 학업을 진행하는 유학생이므로, 언어의 장벽이 다른 이민자 그룹에 비해서는 낮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진행하였다. 둘째, 대학국제협력부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많이 표본추출 되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셋째, 결정적사건기법은 참여자의 기억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므로, 보고된 경험이 부정확하거나 편향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Yoon & Chung, 2017).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 대학에 소속된 소수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문화적응도(한국체류기간 및 한국어 유창성)에 따른 비교는 표본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도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탐색적 연구라는 한계 안에서 현상을 기술하기 위하여 포함시켰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탐색적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정보추구행위를 이해하려는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유학생들의 건강정보탐색행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정보탐색행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향후 폭넓은 유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강성규 (2021. 8. 28.). [유학강국KOREA] 2021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한국유학저널.
출처: <http://www.k-yuha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8>
- 교육통계서비스 (2021). 2021년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e.
출처: https://kess.kedi.re.kr/mobile/publ/publFile?survSeq=2021&menuSeq=3648&publSeq=59&menuCd=89652&menuId=0_13&itemCode=02#detail
- 김경환 (2016). 소셜미디어 건강정보서비스에 대한 융합적 소비자선호도분석방법 연구.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7(5), 181-188. <http://doi.org/10.15207/JKCS.2016.7.5.181>
- 김수정 (2012).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대학생들의 건강정보요구와 추구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77-81.
- 김수정, 오상희 (2012). 대학생들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건강정보 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4), 83-99. <http://doi.org/10.3743/JKCS.2012.29.4.083>
- 김승대, 김명관 (2015). 대학생들의 건강정보 접근이 건강행태 개선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5), 3268-3275. <http://doi.org/10.5762/KAIS.2015.16.5.3268>
- 남영희, 정인숙 (2020).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e-헬스 리터러시, 건강정보 신뢰도 및 건강행위가 건강정보 이용 동기에 미치는 영향 비교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1(3), 513-520.
<http://doi.org/10.9728/dcs.2020.21.3.513>
- 이내영, 한지영 (2011).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 실태 조사. 동서간호학연구지, 17(1), 48-56.
- 임성원, 이현실, 윤예찬, 신광균, 이주선, 문은미 (2013). 대학생의 스마트폰을 통한 건강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399-400.
- 장선미 (2020). 이민자의 건강정보이용실태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2), 629-638.
<http://doi.org/10.5762/KAIS.2020.21.12.629>
-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2016).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 National College Health Assessment II: Reference Group Executive Summary Spring 2016. Hanover, MD: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 Chen, C. J., Kendall, J., & Shyu, Y. I. (2010). Grabbing the rice straw: health information seeking in chinese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Clinical Nursing Research*, 19(4), 335-353.
<http://doi.org/10.1177/1054773810372542>.
- Clayman, M. L., Manganello, J. A., Viswanath, K., Hesse, B. W., & Arora, N. K. (2010). Providing health messages to Hispanics/Latinos: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language, trust

- in health information sources, and media use.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5(sup3), 252-263. <http://doi.org/10.1080/10810730.2010.522697>
- Escoffery, C., Miner, K., Adame, D., Butler, S., McCormick, L., & Mendell, E. (2005). Internet use for health inform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3(4), 183-188. <http://doi.org/10.1080/07448480109595707>
- Gany, F. M., Herrera, A. P., Avallone, M., & Changrani, J. (2006). Attitudes, knowledge, and health-seeking behaviors of five immigrant minority communities in the prevention and screening of cancer: A focus group approach. *Ethnicity and Health*, 11(1), 19-39. <http://doi.org/10.1080/13557850500391394>
- Hanauer, D., Dibble, E., Fortin, J., & Col, N. F. (2004). Internet use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implications in designing healthcare intervention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2(5), 197-202. <http://doi.org/10.3200/JACH.52.5.197-202>
- Hu, Y. & Sundar, S. S. (2010). Effects of online health sources on credibility and behavioral intentions. *Communication Research*, 37(1), 105-132. <https://doi.org/10.1177/0093650209351512>
- Jang, Y., Yoon, J., & Park, N. S. (2018). Source of health information and unmet healthcare needs in Asian American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3(7), 652-660. <http://doi.org/10.1080/10810730.2018.1500660>
- Jeong, W. (2004). Unbreakable ethnic bonds: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of Korean graduat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6, 384-400. <http://doi.org/10.1016/j.lisr.2004.04.001>
- Kim, H., Park, S.-Y., & Bozeman, I. (2011). Online health information search and evaluation: observation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college students and maternal health experts.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ies Journal*, 28(3), 188-199.
- Kim, S. & Yoon, J. (2012). The use of an online forum for health information by married Korean women in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Research*, 17(2), paper 514. Available: <http://informationr.net/ir/17-2/paper514.html>
- Kim, S., Huang, H., & Yoon, J. (2020). A profile of non-seekers of health inform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foreign-born population.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8(1), 68-78. <http://doi.org/10.1633/JISTaP.2020.8.1.6>
- Lederer, A. M. & Oswalt, S. B. (2017). The value of college health promotion: a critical population and setting for improving the public's health. *Americ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1-4. <http://doi.org/10.1080/19325037.2017.1316692>

- Richardson, A., Allen, J. A., Xiao, H., & Vallone, D. (2012). Effects of race/ethnicity and socioeconomic status on health information-seeking, confidence, and trust. *Journal of Health Care for the Poor and Underserved*, 23(4), 1477-1493.
<http://doi.org/10.1353/hpu.2012.0181>
- Yoon, J. & Chung, E. (2017). International students'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behaviours throughout the settlement stages. *Libri*, 67(2), 119-128.
<http://doi.org/10.1515/libri-2016-0048>
- Yoon, J. & Kim, S. (2014). Internet use by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in the U.S. seeking health information. *Aslib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66(2), 118-133.
<http://doi.org/10.1108/AJIM-01-2013-0005>
- Yoon, J., Huang, H., & Kim, S. (2017). Trends in health information-seeking behaviour in the U.S. foreign-born population based on the Health Information National Trends Survey, 2005-2014. *Information Research*, 22(3), paper 760. Available:
<http://www.informationr.net/ir/22-3/paper760.html>
- Zhao, X. (2010). Cancer information disparities between U.S.- and foreign-born population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5(1), 5-21.
<http://doi.org/10.1080/10810730.2010.522688>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Jang, S. (2020). A study in the health information use of immigra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2), 629-638.
<http://doi.org/10.5762/KAIS.2020.21.12.629>
- Kim, K. (2016). A study on the analysis of consumer convergence preferences for healthcare information service in social medi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5), 181-188.
<http://doi.org/10.15207/JKCS.2016.7.5.181>
- Kim, S. & Kim, M. (2015).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approach to health information on improvement of health behavior.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5), 3268-3275. <http://doi.org/10.5762/KAIS.2015.16.5.3268>
- Kim, S. & Oh, S. (2012). Undergraduates' use of social media for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4), 83-99.
<http://doi.org/10.3743/JKCS.2012.29.4.083>

- Kim, S. (2012). An exploratory study of undergraduates' health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behaviors in social media. *Proceedings of Annual Conference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77-81.
- Lee, N. & Han, J. (2011). Health statu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7(1), 48-56.
- Lim, S., Rhee, H., Yoon, Y., Shin, K., Lee, J., & Moon, E. (2013).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perceived usability on mobile health information acceptance.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Conference*, 399-400.
- Nam, Y. & Jung, I. (2020).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e-health literacy, health information reliability and health behavior on the health information use motive i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1(3), 513-520.
<http://doi.org/10.9728/dcs.2020.21.3.513>